

I. 개 요

1. 일시 : 2016. 6. 3. (11:30~14:00)

2. 장소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3. 발표자 : 김보라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4. 참석자 :

(내부 5인) 박정호 (러시아·유라시아팀장)
강부균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권가원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외부 9인) 김보라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김기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olgormaa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박정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박사)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백준기 (한신대학교 교수)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5. 제 목

- 몽골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산업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지난 2015년 6월, 몽골 국가가 ‘국가산업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다수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몽골의 국가발전전략이었던 ‘몽골개발개념(1996)’과 ‘새천년개발목표에 기반한 국가개발종합정책(2007-2021)’이 무효화되었음.

– 이어 2016년 2월에 ‘몽골국 안정적 개발관념 2030’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국가산업정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됨.

– 몽골 정부는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산업다변화와 제조업 부문 육성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음.

□ 본 정책은 몽골의 제조업 분야를 선진 기계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성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3개의 시행단계와 8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됨.

– 1단계(2015-2020) 원료가공 및 수입대체산업 발전, 2단계(2020-2025) 수출지향산업 발전, 3단계(2025-2030) 지식기반 수출지향산업 발전으로 구분됨.

□ 몽골 국회는 1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0월 ‘국가산업정책 시행 중기전략(2015-2020)’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6개의 목표와 관련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 몽골 산업발전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 간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추진될 수 있음.

– 경공업 부문, 제조업 관련 인프라 및 운송 부문, 기술 라이선싱,

기술 및 기계장비 R&D, 제조업 부문에 ODA·KSP·GSP 사업 연계 등

2) 토론 내용

- 본 ‘국가산업정책’은 최근 대통령이 산업다변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제정되었음.
- ‘국가산업정책’은 ‘몽골개발개념(1996)’과 ‘새천년개발목표에 기반한 국가개발종합정책(2007-2021)’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 몽골 정부의 정책 구체화 및 세부 조치 수립 과정: concept(정책 방향 설정) → 정책 → 전략 → 프로그램 → action plan
- ※ 법 → 국회령(법안을 바탕으로 시행사항 명시) → 정부령(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명시)
- 예산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음.
- 2단계와 3단계의 세부 목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현재 1단계 구체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단계 성과에 따라 2단계와 3단계의 세부목표가 명시될 것으로 예상됨.
- ‘몽골국 안정적 개발관념 2030’은 농업, 빈곤, 산업 등 여러 개의 세부부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철도 건설 분야 또한 일부 포함되어 있음(글상자 1 참고). *나희승

글상자 1. ‘몽골국 안정적 개발 관련 2030’ 中 인프라 분야

2.1.5 인프라 분야

목표4.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도로, 운송 및 로지스틱 망 개발

- » 1단계(2016-2020): 자밍우드, 후시깁 훈디와 알탕볼락에 운송·로지스틱 센터 설립, 국제·국내 기준에 부합하는 포장도로 1,600km 확대, 오하호닥-가송소하이트 노선의 철도 건설 및 운영, 에르테네트-오보오트와 복드하양 노선의 철도 건설 개시, 통과운송 개발 등
- » 2단계(2021-2025): 농업, 제조업, 광업 분야에 기반한 운송·로지스틱 센터 건설 및 운영, 새로운 종류의 운송 개발, 국제·국내기준에 부합하는 포장도로 800km로 확대, 에르테네트-오보오트와 복드하양 철도 건설 완성, 지역간 철도 건설 개시 등
- » 3단계(2026-2030): 운송·로지스틱의 센터 추가 건설, 국제·국내기준에 부합하는 포장도로 470km 확대, 지역간 철도 건설 완성 등

주: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6 оны 19 дүгээр тогтоолын хавсралт 일부 발췌, 김보라 교수 번역 내용

- 중·몽·러 경제회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국가의 자급능력이 보장되어야 높은 수입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바, 소비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몽골 경제의 특성상 다소 무리가 있는 정책으로 보임. *최필수
- 채소, 육류, 밀가루 등 식료품 자급률은 높은 편이나, 의류, 생활용품 등은 수입에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임.
- 연료(석유)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러시아 90%, 중국, 한국 등).
- 철광석 가공공장은 부재한 상황이며, 다른 지역의 제철소는 사용한 철을 재가공하는 수준임.
- ☐ 몽골이 보유한 원자재 또한 질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계기업의 진출, 원조 지원 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몽골 국내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저품질의 상품을 구입해야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으나, 국내 상품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중장기적으로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정부의 신념에 따라 국내제품 구입이 장려되고 있음.

- 정권 교체 시 본 정책도 무효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몽골 국민 모두가 국가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몽골은 2009년, 2014년 두 차례의 외환위기를 겪으며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본 정책 제정은 이와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위기의식에서 기인함.
- 산업다변화는 광물의존형 국가들의 공통과제로 몽골만의 문제가 아닌 바, 다수의 광물의존형 국가들 사이에서 몽골만의 명확한 투자매력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투자매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배후시장, 구매력, 인프라 시설의 보유 현황 등이 있음.
- 몽골은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계기업 진출 시 금융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프라 시설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음.
- 주요 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
- 제조업 부문에 대한 한·몽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한국에 대한 협력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몽골은 한국의 마케팅, 경영노하우, 경공업 기계장비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한국제 경공업 기계장비의 경우 높은 품질로 선호되고 있으나, 최근 저렴한 중국제로 대체되고 있음.
- (별첨 11p 관련) 보르온두르 정유공장은 최근 마무리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광산에서 약 540km 거리에 위치하는 곳에 설립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해당 지역은 다수의 가공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상당량의 물을 필요

로 하는 정유공장의 특성상 다른 공장들이 사용하고 배출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임.

- 또한 수출 및 운송 관련 가장 적합한 곳으로 확인됨.

□ ‘국가산업정책’은 ‘새천년개발목표에 기반한 국가개발종합정책 (2007-2021)’이 1단계(2007-2015)부터 실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새로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단기적인 기간에 작성됨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산업정책’은 ‘새천년개발목표에 기반한 국가개발종합정책 (2007-2021)’에서 기간을 변경하고 3단계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음.

□ 각종 전략이 계속해서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현재 몽골의 부채가 GDP의 80% 이상(실제로는 100% 초과했을 것으로 예상)임을 감안했을 때, 새로 제정된 발전전략의 성공 가능성 또한 확신하기 어려움.

- 현재 몽골은 차관으로 차관을 갚는 수준에 이르렀음.